

## 요약

서울 미래세대, 희망적 꿈·현실 고단함 공존  
가족영향력 아래 있고 진보적 정치의식 지녀

### 미래세대 연구,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이해 폭 넓히기 위해 필수

서울의 인구사회영역과 경제영역에서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예측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앞으로 십수 년만 지나면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 과연 누가 이들을 부양할 것인지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현재의 젊은 청년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노부모들과 함께 기꺼이 공존하려고 할 것인가? 서울이 생산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사회 전체의 파이를 어떤 우선순위로 나누느냐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때 세대 간 갈등과 충돌은 정치제도를 통해, 사회제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서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근간으로서 세대연구는 미래 정책수요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변화는 세대 간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세대의 객관적, 주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세대연구는 세대의 개념·형성과정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

오늘날 세대연구를 둘러싼 논의는 담론수준의 일반론과 칼 만하임의 세대이론에서 출발한 사회문화이론들이 혼재되어 간헐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세대현상을 둘러싸고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하나는, 오늘날 나타나는 세대현상은 새로운 것으로 지금까지 사회를 분석하는 기본 시각인 계층 문제를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와 대립되는 또 다른 시각은, 오늘날의 세대현상이란 인구 코호트적인 속성을 일부 반영하고는 있지만 특정 연령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자적인 세대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사실 세대를 둘러싼 담론은 정치적 맥락에서 등장했다. 즉, 대통령선거에서 세대 간 선호가 분명히 갈라지는 투표 현상이 고찰되면서 세대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투표현상이 정치지형의 핵심에 있다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기술 리터러시(literacy)에 의해 ‘세대 차이’가 발생하면서 세대 간 차이점이 확연히 부각되고 이에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한 세대문화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나타났다.

이렇듯 세대연구를 둘러싸고 세대개념과 세대 형성 과정에 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세대론이 우리 사회의 연령 간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중요한 접근법이라는 시각과 세대론이 사회 갈등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론적 세대담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미래세대 서베이 관점에서 보는 세대이론의 핵심은 세대문제가 제기하는 정치성과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서울의 미래세대가 동일한 세대적 감수성과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세대 내부의 이질성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미래세대, 서울인구의 31.3%… 미혼이 과반수·자산 갈수록 줄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0년대부터 유소년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중장년층인 40, 50대 인구가 1,64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2%를 차지하면서 연령별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 20~29세는 6,413,8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9%, 30~39세는 7,394,623명으로 14.9%를 차지하여, 미래세대인 20~39세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8%에 해당한다. 서울 역시 중장년 중심의 인구구조가 전국의 인구구조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서울의 20~29세는 1,403,549명(14.7%), 30~39세는 1,591,560명(16.6%)으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3.7% 더 높은 서울인구 전체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미래세대는 다양한 이유로 미혼상태가 절반을 넘고 있는데, 20~24세의 대부분(98.9%)은 미혼, 25~29세 역시 89.1%가 미혼상태이다. 한편 30~34세는 56.1%가 미혼상태로 절반 이상이 미혼이나 35~39세 구간에 이르면 배우자 있음이 63.4%로 미혼 33.7%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미혼, 기혼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가구 특성은 25~29세는 1인가구가 가장 많으나 나머지 연령층은 2세대가구의 특성이 가장 일반적이다.

## 서울 미래세대 68% “내 꿈은 실현가능”... 89% “스트레스 받아”

서울 미래세대의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면 10명 중 4명 정도가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38.5%는 행복한 상태, 20.6%는 불행한 상태이다. 주관적 행복감이 수치적으로 낮지는 않으나 구성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세대는 자신들은 ‘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는 실현가능하다고 믿고 있다(실현가능성에 대해 68%가 대체로 그럴 거라고 응답함). 서울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미래세대의 기대감은 사실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는데, 미래세대들은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35~39세 연령층이,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의 지원을 기대한다.

서울 미래세대의 욕망을 들여다보면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욕망이 내집 마련, 취업, 일 자리에 자리를 내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지만(51.3%),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에 대한 긍정률은 60%,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59%에 달한다. 서울 미래세대 10명 중 9명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88.5%)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2015년 기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나타났다. 우리 앞에 놓인 놀라운 현실이다.

##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 성격... 69%는 친구·지인 신뢰 가능

서울 미래세대의 10명 중 6명 이상은 본인 성격이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하다’(63.4%),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 한다’(60.1%) 등 긍정적 성격이 절반을 넘었으며, 반면 절반 정도는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하다’(52.3%)고 응답했다. 미래세대가 스스로 긍정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는 인식은 월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600만 원 이상 층에서 70% 내외), 가구원 수가 5명 이상 함께 사는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판적이고 논쟁을 좋아한다’라는 자기 성격 인식은 직업이 없거나 고학력 집단에서 절반을 넘는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 미래세대 10명 중 7명은 ‘친구 및 지인을 신뢰할 수 있다’(69.4%)고 하였고, 10명

중 6명은 ‘친구가 나의 학업과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64.4%)고 생각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협동해서 일하면 보통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49.8%)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가 편하다’(47.7%)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미래세대는 문제 유형별로 먼저 찾았던 대처 경로에 차이가 있었다. 금전적 문제, 건강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긴급 혹은 재해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찾은 경로가 ‘같이 사는 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각각 51.6%, 48.8%, 45.6%, 38.4%), 감정적, 심리적 문제에서만 ‘친구’를 찾는 비율(44.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미래세대들이 1순위로 선택한 성공한 삶의 모습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40.7%)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2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의 속내에 이중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1% “의사결정에 부모가 영향 끼쳐”… 46% “진보적 정치성향”

서울 미래세대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미래세대는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과 공유하는 정도가 31.8%, ‘공유하지 않는다’는 38.8%로 나타났다. 독립기로의 이행기에 있다는 생애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유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세대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미래세대 10명 중 4명 정도(40.9%)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24.5%에 비해 16.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중요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5점 만점),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평균 4.15점)와 ‘외부압력이나 뻥에 의한 영향’(4.15점)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사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4.07점), ‘적용되는 기준의 수시 변화’(3.87점),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의견 미반영’(3.57점), ‘필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음’(3.35점)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미래세대들은 한국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연고나 배경과 같은 외부 요소들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세대의 정치적 성향은 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45.5%, 매우 진보적 4.0%+다소 진보적 41.5%), 중도적 정치성향이라고 응답한

미래세대는 10명 중 4명 정도인 39.0%로 나타났다. 10명 중 1~2명 정도인 15.5%(다소 보수적 14.1%+매우 보수적 1.4%)는 스스로 보수성향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지형을 서울시민 전체와 비교해 보면 미래세대가 갖는 상대적 진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민 전체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성향은 38.2%, 보수성향은 32.1%, 중도성향은 29.7%이다(2016년 서울서베이 기준). 이들 진보적 성향의 서울 미래세대가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꼽은 것은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4.52점, 5점 만점), ‘탈세하지 않는 것’(4.37점),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키는 것’(4.29점),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보는 것’(4.00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3.9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